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⑨ 물 끓이는 다구에 대해

찻물 끓이는 온도까지 고민했던 조상들

차를 만드는 제다(製茶)에서부터 차를 달이는 행다(行茶)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좋은 찻잎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좋은 물을 취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물이 좋지 못하면 차의 본성과 색·향·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당대 육우(陸羽), 송대의 구양수(歐陽脩)를 비롯하여 명·청대 수많은 다인들은 좋은 물에 대해 연구하고, 기준을 세우고, 품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끓이는 도구는 완성된 차를 담는 다완만큼이나 중요한 다구라고 할 수 있으며, 시대별 차의 종류나 음용방식에 따라 그 형태나 쓰임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차의 제다와 탕법(湯法)에는 여러 방식들이 존재해왔지만, 그중에서도 당대에는 〈다경(茶經)〉을 지은 육우가 정립한 덩이차(餠茶)의 제다와 그 탕법인 자다법(煮茶法)이 유행하였다. 자다법에는 찻물을 끓이기 위하여 다정(茶鼎)이나 다복(茶鍑), 다요(茶銚)라고 하는 낮고 널찍한 작은 솥이나 쟁개비(냄비)가 사용된다. 당대 염립본(閻立本)이 그린 것으로 전하는 〈소익잠란정도(蕭翼賺蘭亭圖)〉를 보면 자다법에 사용된 차솥의 모양과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형태의 장점은 물이 끓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기 편하여 적정한 찻물의 온도를 가늠하기에 좋다. 또한 물이 끓으면 여기에 찻가루를 떠 넣은 후 긴 젓가락이나 수저로 휘저어 차거품을 만들고 표(瓢)라고 하는 국자로 차와 차거품을 고르게 떠서 다완에 담아 차를 마시는데, 이렇게 찻물을 휘젓고 국자로 차와 차거품을 떠내기에도 역시나 낮고 널찍한 구조가 편리했을 것이다.

송대에는 당대의 덩이차보다 정밀하고 섬세한 공정을 거쳐 만든 단차(團茶)가 유행하였다. 단차를 음용하는 방식은 점다법(點茶法)으로, 찻물을 끓이거나 끓인 찻물을 다완에 붓기 위해 옮겨 담는 용도로서 주전자 모양의 탕병(湯甁)을 사용하였다. 북송 황제 휘종(徽宗)이 그렸다고 전하는 〈당십팔학사도권(唐十八學士圖卷)〉이나 요·금대 묘 벽화에 그려진 여러 〈비다도(備茶圖)〉, 남송대 유송년(劉松年)이 그린 〈연다도(攆茶圖)〉 등을 통해 점다의 과정에서 탕병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물을 끓이는 다구인 청동주자. 고려시대에 제작됐다.

시대 거치며 제다, 탕법 변화해
그에 맞는 찻물 온도들도 고려
찻물 끓이는 다두들 맞춰 변모

단차를 점다할 때에는 찻가루를 다완에 넣고, 탕병으로 끓인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수저(茶匙)나 다선(茶筅)으로 빠르게 휘저어 풍성하고 밀도 높은 거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격불(擊拂)을 한다. 점다법에서는 차 거품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정밀함이 요구되는 과정이었던 만큼 찻가루를 넣은 다완에 끓인 물을 옮겨 부을 때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적정량을 섬세하게 부어야 했다. 때문에 점다를 위한 탕병은 대개 손으로 잡기 편한 손잡이가 있었고, 물이 갑작스레 왈칵 쏟아지지 않아야 하므로 병처럼 늘씬하고 목이 긴 것이 선호되었다. 물이 나오는 주둥이 또한 짧지 않아야 물을 붓는 속도나 양을 조절하기 편리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길고 가느다란 곡선을 이루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단차의 조공을 금지(1391)함과 더불어, 명·청대에는 산차(散茶)가 주류의 차종으로 자리하게 된다. 산차는 대개 물을 끓여서 주자 모양의 다관(茶罐)에 찻잎과 끓인 물을 부어 우려낸 후 찻잔에 따라 마시는 포다법(泡茶法)으로 음용한다. 차를 우려낼 물을 끓일 때에는 당대 자다법에서부터 사용된 낮고 널찍한 솥 형태의 다정이나 다복, 다요뿐 아니라 주전자처럼 생긴 탕관(湯罐)을 사용하였다. 탕관은 대개 배가 부풀어 있는 납작한 타원의 몸체에 짧은 주둥이를 지닌 주전자 모양이다. 명대 당인(唐寅)이 그린 〈투다도(鬪茶圖)〉에서 화로 위에 끓고 있는 탕관을 볼 수 있다.

물을 끓이는 다구의 재질에 대해서는 당대 육우의 〈다경〉, 송대 채양(蔡襄)의 〈다록(茶錄)〉, 휘종의 〈대관다론(大觀茶論)〉, 명대 장원(張源)의 〈다록(茶錄)〉 등을 비롯하여 시대별 여러 다서에 기록되어 있다. 황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대개 철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지만, 도자기, 돌로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청대에 접어들면 찻잎을 물에 그대로 우려내는 포다법이 유행한 만큼 물의 역할이 전대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 품수(品水)가 더욱 세분화되었고, 찻물을 끓이는 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품평도 늘어난다.

또한 차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탕법이 있었던 만큼, 각 탕법에는 사용하기에 적합한 온도가 있었다. 옛 사람들은 물을 끓일 때에 그 최적의 온도를 가늠하여 알맞은 순간에 차를 달였다. 물이 끓는 모습이 보이는 다정, 다복, 다요는 '게의 눈(蟹眼)', '물고기의 눈(魚眼)' 등으로 표현되는 물방울의 크기와 모양으로 물의 온도를 짐작했다. 그러나 주입구가 좁고 뚜껑이 있는 탕병이나 탕관은 물이 끓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소리로서 물이 끓는 정도를 구분하였는데, 그 소리를 '소나무에 이는 바람소리(松風)'나 '계수나무에 떨어지는 빗소리(桂雨)' 등에 빗대어 시적으로 묘사했다.

섬세한 차 세계를 추구한 옛 사람들은 차를 끓이는 다구와 그 역할에 따라서도 차의 향과 맛이 달라진다고 여겼다. 때문에 찻물을 끓임에 '어떤 물을 길어서 사용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 물을 '어디에, 어떤 온도로 끓여서 사용해야 하는가'까지 깊이 고민하고 선별했다. 조선의 초의(草衣) 또한 〈동다송(東茶頌)〉에서 찻물을 끓이는 중정의 도(道)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였다. 물을 끓이는 다구란 결국 이러한 도를 얻는 공간이니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⑱

1.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시봉하여 다문제일로 일컬어지며, 경전을 결집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한 제자는 누구인가?
① 라훌라 존자
② 아난(아난다) 존자
③ 푸르나(부루나) 존자
④ 목련(마하목갈라나) 존자
⑤ 사리불(사리푸트라) 존자

해설 : 아난은 부처님을 25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시봉하면서 가장 많은 설법을 들었기에 다문(많이 들음)제일이라 하였다.

2. 법문을 듣는 자리에서 졸다가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으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자책하여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한 나머지 시력을 잃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 눈[천안(天眼)]을 얻고, 열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석가족(사꺄족) 왕자 출신인 이 사람은 누구인가?
① 우빨리(Upali) ② 라훌라(Rahula) ③ 아난다(Aannda)
④ 데와닷따(Devadatta) ⑤ 아누룻다(Anuruddha)

해설 : 우빨리는 지계제일, 데와닷따는 부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악인이다. 아누룻다는 아나율이라고도 하며 하늘 눈을 얻은 천안제일이다.

3.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신통제일로 일컬어지는 제자는?
① 라훌라 존자
② 목련(목건련) 존자
③ 아난(아난다) 존자
④ 푸르나(부루나) 존자
⑤ 사리불(사리풋타) 존자

해설 : 라훌라는 밀행제일, 목련은 신통제일, 아난은 다문제일, 부루나는 설법제일, 사리불은 지혜제일이다.

4.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21년이 되던 해에 사왓티 거리는 살인마의 출현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 살인마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죽은 사람의 손가락을 엮어 목에 걸고 다녔다. 이 살인마를 부처님은 교화시켰는데, 그 살인마의 이름은?
① 틱낫한 ② 박가와 ③ 달라이라마 ④ 앙굴리말라 ⑤ 암베드카르

해설 : 앙굴리말라는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으로 100명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게 되었고, 99명의 손가락을 모은 뒤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 마지막 손가락을 모으리라는 사실을 알아챈 부처님께서 직접 교화하셨다.

5. 매우 우둔하였지만, 부처님께서 늘 티끌(번뇌)을 없애라는 가르침을 받고 걸레로 늘 쓸고 닦으면서,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모습을 관찰하여 깨달은 사람은?
① 수밧다
② 앙굴리말라
③ 니디(니이다이)
④ 마하까사빠(마하가섭)
⑤ 쭐라반특가(주리반특가)

해설 : 주리반특가는 매우 우둔하여 가르침을 암송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여 청소라는 반복되면서 간단한 행위를 통해 부처님께서 교화하셨다.

6.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는?
① 위사카 ② 말리까 ③ 암바빨리 ④ 야소다라 ⑤ 마하빠자파티

해설 : 여성의 출가는 아난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부처님의 이모이시자 키운 어머니인 마하빠자파티가 출가하여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다.

7. 부처님 당시 최초로 삼보에 귀의한 재가 제자는?
① 유마거사 ② 숫도다나왕 ③ 빔비사라왕 ④ 수닷타장자 ⑤ 야사의 아버지

해설 :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 이후 숲 속에서 노닐던 야사 및 50명을 출가시켰고, 이들을 찾아온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재가신도가 되었다. 다만 최초의 공양을 한 제위와 파리의 경우 아직 초전법륜 이전이었기에 삼보 중 승보가 아직 없었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정답 : 1. ② 2. ③ 3. ② 4. ④ 5. ③ 6. ③ 7.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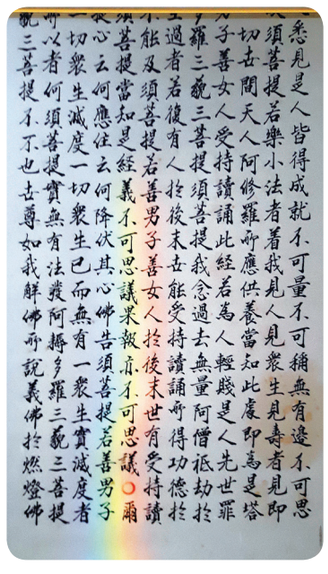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새해 기운을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